

## A-1 자가유리치은이식 및 상피하결합조직이식을 이용한 치근피개술의 치험례

나성윤, 권영혁, 허 익, 박준봉, 이만섭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치근면의 노출은 치아의 정출이나 치은퇴축으로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백악법랑경계 하방의 부착상실로 인해 야기된다. 부착상실은 치주염, 치아의 순측면 이동, 치아 외상에 의한 골열개에 기인하거나, 긴 상피부착 부위에 외상이나 어떠한 원인으로 치은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을 때 발현한다.

부착상실이나 골열개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. 그러나 치주조직의 염증이 개선되고, 외상력이 조절되어 치은퇴축이 정지된 경우에도 심미적인 장애를 비롯해 지각과민으로 인해 효과적인 구강위생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치주염 및 우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. 이것을 해결하고자 심미성과 예방치과적 의미에서 국소적인 노출치근면에 대한 외과적 피개술이 다양하게 고안되었으며 또한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였다.

본 임상 증례는 자연치의 노출된 치근면에서의 부착치은 폭경의 증대 및 치근피개를 획득한 경우와 보철전 치주처치로서 실패치에서의 치근피개를 도모한 경우로 심미적,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그 치험례를 보고하는 바이다.